

2017. 10



암환우와 함께하는
호스피스 투데이
HOSPICE TODAY



(En)australianhospice.com.au (Kr)sydneyhospice.com.au • Email:australianhospice@gmail.com • Mob: 0430 370 191 / 0416 758 272

Australian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 / Sydney Institute of Cancer Aid Inc

제14차 호스피스 콘서트
(Concert/Shalom Centre, Baptist Care 2017.9.25)



이달의 말씀(The Word of God):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린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3~5)

He is despised and rejected of men: a man of sorrows, and acquainted with grief: and we hid as it were our faces from him: he was despised, and we esteemed him not. Surely he hath borne our griefs, and carried our sorrows: yet we did esteem him stricken, smitten of God, and afflicted. But he was wounded for our transgressions, he was bruised for our iniquities: the chastisement of our peace was upon him: and with his stripes we are healed. (Isaiah 53:3~5)

월간·통권 2호
(Vol. NO.2)

Address: 29 Clanalpine St. Eastwood NSW 2122, PO BOX 615 Lidcombe NSW 1825/ Publisher: Rev. Jang Dae Kim



안환우와 그의 제학을 댄

호스피스 투데이

HOSPICE TODAY

2017

10

C · O · N · T · E · N · T · S

- 02 현대 호스피스 사역의 신개념
- 06 ACC/SICA 호스피스 활동
- 07 회계 자료

표지 사진설명



2017년 9월 25일 Baptist Care, Shalom Centre 에서 제14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콘서트를 가졌다. 제3차 한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연수교육을 위하여 한국에서 특별 초청되어 오신 이종욱 교수님과 장길자 여사님이 함께 한 아름다운 천상의 코이노니아였다. 풍성한 은혜의 잔치에 많은 봉사자들과 환우가 함께 하였으며, 특히 그곳에 거주하시는 한국 분은 저희 호스피스 봉사자들이 매주 찾아 뵙는 분들이었다. 한 분은 너무 좋아 함께 춤을 추고 싶었지만 손이 올라가지 못하여 박수만 쳤다고 하셨다. 이 콘서트는 너무나 환상적이었다고 말하는 직원들, 꼭 다시 와 달라고 요청하는 외국 환우들, 수십 년간 콘서트 지휘하셨던 분께서 "내가 이런 콘서트는 처음이다" 라고 하시고... 국경을 초월하여 모두가 함께 어우러진 참 좋은 시간이었다.

현대 호스피스 사역의 신개념

- 김장대 (Rev/Ph.D. 호주호스피스협회 대표)

1. 호스피스의 어원

호스피스(hospice)라는 어원은 라틴어 “hospes”에서 파생되었는데 그것은 손님(guests)과 주인(hosts)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중적 의무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으며,¹⁾ 또한 “호스피스(hospice)”는 라틴어의 호스피탈리스(hospitals)와 호스피티움(hospitium)의 두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주로 호스피탈리스는 '치료하는 병원'을 의미하는 호스피탈(hospital)로 변천되었고, 주인과 손님 사이의 따뜻한 마음과 그러한 친절할 마음을 표현하는 '장소'의 뜻을 지닌 '호스피티움'이라는 어원과 함께 호스피스(hospice)는 복합적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중세에는 후자의 의미가 더욱 짙어져 호스피스의 의미는 유럽 여행자와 순례자에게 숙박을 제공했던 작은 교회를 의미하기도 했다. 그런데 여행자가 병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여행을 떠날 수 없게 되는 경우, 그대로 그곳에서 치료와 간호를 받게 되면서 이 수용시설 전반을 호스피스라고 부르게 됐다. 그 당시 교회에서 간호를 맡는 성직자의 헌신과 환대를 'hospitality(친절)'라고 불렀으며 여기서 오늘날 병원을 일컫는 용어인 'hospital'이 나왔다.²⁾

2. 호스피스의 기독교적 의미

21세기 post modern(후기현대)에는 '호스피스'의 개념을 어원적으로 새롭게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원적으로 hospice는 host와 guest의 합성어로부터 파생되었다. Host (남성명사)와 hostess (여성명사)는 대부분 어떤 행사에서 손님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 혹은 그 행사기간 동안 속죄를 위하여 몸을 주신 그 선행을 기념하는 성찬식의 빵을 host라고 한다. 이렇게 아낌없이 베푸는 제공자를 host 혹은 hostess하고 하는 반면에, 그 친절을 받는 사람을 guest라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hospice라는 용어는 친절을 베푸는 사람인 host와 그 친절을 받는 사람인 guest의 관계성에서 생성되었다. 이 관계성을 히브리어로 헤세드(Checed)라고 하는데, 헤세드는 친절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사랑에서 우러나온 부드러운 존중심이나 친절이라는 개념 이상의 뜻이 담겨 있다. 헤세드는 대상과 관련된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대상에게 사랑으로 고착하는 친절을 말한다. 하느님이 자신의 종들에게 나타내는 친절, 그 종들이 그분에게 나타내는 친절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그러므로 헤세드는 충성 즉 의롭고 정성이 담겨 있고 거룩한 충성의 범주에 들어가는 말로서, “사랑의 친절”과 “충성스런 사랑”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다 (창 20:13; 21:23). 특히 시편 136장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라는 말이 후렴구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서 “인자하심”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헤세드(Checed)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이 맹세하심으로 말미암아 변치 않는 사랑”을 말한다. 신약성경에서는 주로 측은지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1) Robbins, Joy (1983). Caring for the Dying Patient and the family. Taylor & Francis. p.138. ISBN 0-06-318249-1.
 2) 윤영호 [나는 한국에서 죽기 싫다] (엘도라도 출판사, 2014.07.17), P.258 ISBN-13 9788901165769

편집실_호주호스피스협회

그래서 영어로 ‘compassion (금휼히 여김, 동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헬라어 *σπλαγχνίζομαι*(스플랑크니조마이), 즉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 말은 명사로 사용된 *σπλαγχνον* (스플랑크논, 허파 마음 간장 등) 으로부터 파생되었다 (막 8:2).

따라서 현대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호스피스’의 의미는 하나님의 대속의 은총,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서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

3. 과연 ‘호스피스’의 의미는 ‘품위 있는 죽음’만을 준비하는 과정일까?

호스피스 사역은 결코 말기 암 환우의 죽음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삶의 마지막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것만을 의미하는 소극적인 사역도 아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는 질병이지만, 영적으로는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 번 돌이켜 보는 기회이다.

‘호스피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말기 암환우의 경우, Cure(치료)의 개념이 아니라 Care(보살핌)의 개념으로 접근한다. 현실적으로 많은 호스피스 시설들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 그 암을 극복하기 위하여 환자 자신과 의사가 하나가 되어 치료의 과정을 밟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한다. 그러나 현대 의학에서 암이란 과거와는 달리 정복될 수 있는 질병이다. 비록 의사가 6개월 미만의 삶의 마감을 예견할지라도 많은 암 환우들이 화학적 약물치료보다 합성보조식품과 자연치유로 전환하게 되고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함으로써 암으로부터 자유 함을 얻고 있다. 그러기 위하여 무엇보다 환우의 치료에 대한 환우 자신의 원지와 보호자의 지극한 보살핌이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 한다. 이 부분이 오늘날 호스피스 전문가들이 지향하여야 하는 사역이다.

4. 호주 호스피스 협회(ACC)가 지향하는 ‘호스피스’의 새로운 패러다임

따라서 호스피스는 남은 삶이 6개월 미만이라고 병원에서 진단받은 암 환우의 삶을 단지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게 만들어 주는 소극적인 의미의 친절(hospital)이 아니라, 그 환우가 바라는 육체적, 정신적 재활을 제공해 주는 것이 최선의 친절(hospital)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화학적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환우일지라도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므로 정신적으로 평안함을 갖게 하고 그의 가족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공급해 주면 사람이 생각지 못하였던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환우에게 하나님의 창조원리와 함께 약초의학과 영성의학으로의 접근 방법은 호스피스 사역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호주 호스피스 협회(ACC)는 암 환우와 그의 재활을 돕는 호스피스로 거듭나야 한다. 비록 지금까지 ‘호스피스’라는 용어가 암 환우들에게는 듣지 불편한 단어이었을지라도 이제는 ‘호스피스’라는 용어가 결코 죽음으로 가는 과정의 보살핌이 아니라 환우의 재활을 돕는 사역으로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 앞으로 호주 호스피스협회(ACC)는 암 질환 이극복자에 대한 자연치유의 버팀목이 될 것이며, 암 극복자에 대한 유익한 건강관리 요법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암 환우와 그의 재활을 돕는 바닷가 걷기와 암 환우와 그의 보호자를 위한 선강세미나, 그리고 다양한 질병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중보기도회와 자원봉사자들의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여 21세기 호스피스 사역의 모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요한계시록 2장 10절)



위) 제14차 호스피스 콘서트 (Chroma Harp band)
아래) OCCA Band

New concept of modern hospice ministry

- Kim, Jang-Dae (President, Rev / Ph.D., Australian Hospice Association)

1. The etymology of hospice

The word, hospice origin derives from the Latin "hospes", which implies a dual obligation that applies to both guests and hosts. Also, in Latin, hospice means hospitalis, and hospitium. Hospice is a term that combines both the term hospitalis which means "hospital that cures", and "hospitium" means "place" that promotes warmth between the owner and the guest and such kindness. Especially in the Middle Ages, the latter meaning was more focuses as hospice was defined as a place, a small church that provided lodging for European travelers and pilgrims. However, when the traveler was unable to travel due to illness or health reasons, the whole facility was called a hospice as he was treated and nursed there. At that time, the devotion and hospitality of the nursing minister in the church was called 'hospitality'. Here, the term 'hospital', which is called the hospital today, came out.



위) 환우들과 함께하는 봉사자 전체의 흥겨운
율동
아래) 부재총 (Kyung Ok Kim)

2. The Christian Meaning of Hospice

In the 21st century Post-Modern (late modern), it is necessary to reestablish the concept of 'hospice'. Etymologically, hospice is derived from compound words of host and guest. The host and the hostess (female noun) are responsible for the guest in any event. A host or hostess is a generous donor, while a guest is a guest. In this sense, the term hospice was created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a friendly person, a host, and a guest, a kind person. This relationship is called חֶסֶד (Chesed) in Hebrew, and although Chesed has a word of kindness, it is more than a concept of friendliness or kindness that comes from love. A Chesed, kindness that adheres to a target with love until it is accomplished. That is the kindness that God shows to his servants, and the kindness his servants show to him. Therefore, the word " חֶסֶד " is translated into various categories, such as "kindness of love" and "loyal love" (Genesis 20:13; 21:23), which falls into the category of loyalty: righteous and sincere and holy allegiance.

In particular, Psalm 136 says that "His lovingkindness is everlasting." The Hebrew word for "benevolence" is חֶסֶד , meaning "love unchanging because of God's oath" It says. In the New Testament, there is a sense of empathy. Therefore, in English it means "compassion", which means the Greek word σπλαγχνίζομαι ("spanky nyomai"), which means "have compassion." This word is used as a noun σπλαγχνον Heart, liver, etc.) (Mark 8: 2).

Therefore, the meaning of 'hospice' used in modern Christianity can be seen to be completed in the grace of God's atonement, the love of Jesus on the cross.

3. Will the meaning of 'hospice' be the process of preparing only 'decent death'?

The hospice ministry acknowledges that it can't prevent death in cancer patients. However, it is also not a passive ministry that only means alleviating the last suffering of life. 'Cancer' is an illness physically, but it is an opportunity to look back at one's life spiritually. Most people who use the term 'hospice' approach the concept of care rather than the concept of cure in the case of terminal cancer. In reality, many hospice facilities are moving in that direction. In order to overcome the cancer, the patient and the doctor become united and take the course of treatment, but many people fail. In modern medicine, however, cancer is a disease that can be conquered unlike hyperglycemia. Although doctors foresee a deadline of less than six months, many cancer males are becoming more free of cancer by switching to synthetic supplements and natural healing, chemical control, and regular exercise, rather than chemical medication. Therefore it is evident that the treatment of cancer patients can be further extended by the promotion of their own sense of well-being through natural healing.

4. A new paradigm of the 'hospice' which is aimed at the Australian Hospice Association (ACC)

Therefore, hospice is not a passive form of hospital that helps the life of cancer patients who have less than 6 months left, to prepare for the beautiful death, but it is an active ministry that seeks to provide the physical and mental rehabilitation that the cancer patient wants. As man is a spiritual animal, it can cause miracles that man could not think of, resulting in spiritual peace and new comfort and new power to his family. Many miracles are recorded in the Bible. Especially with cancer patients', the approach to herbal medicine and spiritual medicine, along with God's creation principle, can provide a new milestone in hospice ministry.

In this context, the Australian Hospice Association (ACC) should be reborn as a hospice to help cancer and rehabilitation. The term 'hospice' should no longer be a care for the process of death, but a new one to help the rehabilitation of the disease. In the future, the Australian Hospice Association (ACC) will be the backbone of natural healing for cancer patients and will do their best to provide beneficial health care for cancer survivors. Hence, a model of the twenty-first century hospice ministry, by providing a variety of information on disease management, especially intercourse and volunteer training and weekly beach walks that evidently helped cancer patients and their rehabilitation, I will do my best. Be faithful to your death, and I will give you the crown of life (Revelation 2:10)

History of ACC

25~29/9/2017 Third Korea-Australia Hospice Volunteer Training and First Aid Training
 25/9/2017 `14th Hospice Concert (Shalom Centre, Baptist Care, Macquarie Park)"
 2/9/2017 Special guest speaker, Dr. Tae Sik Jung (Clifton Gardens, 1pm)
 14/8/2017 1th ACC General Meeting of Members (Zino's Korean Restaurant, 3pm)
 12/8/2017. 13th Hospice Concert (Uniting Thomas Roseby Lodge, Marricville)
 10/7/2017. 12th Hospice Concert (Jesmond Aged Care, Strathfield)
 12/6/2017. Chairperson/Public Officer Rev Jang Dae, Kim signed agreements (MOU) with Anyang Sam Hospital
 5/6/2017. 11th Hospice Concert (Columbia Aged care, Strathfield)
 8/5/2017. 10th Hospice Concert (Coinda Court, Baptist Care, Macquarie Park)
 25/4/2017 ~ 27/4/2017 Second Korea-Australia Hospice Volunteer Training: Kye Myung University, Dong San Hospital Hospice
 10/4/2017. 9th Hospice Concert (The Gracewood Centre, Baptist Care, Kellyville)
 20/3/2017. 8th Hospice Concert (Meredith House Nursing Home, Strathfield)
 20/2/2017. 7th Hospice Concert (Woodlands Nursing Home, Cherrybrook)
 20/1/2017. 6th Nursing Home Visit Concert (Estia Nursing Home, Ryde)
 31/12/2016. 1st Hospice Mother's Award (Prize Winner: Keum Gui Lee, Ji Soo Jang, Jung Ok Jang)
 22/12/2016. 5th Nursing Home Visit Concert (Baptist Care, Shalom Centre)
 3/12/2016. Year End BBQ Party (Manly Beach)
 30/11/2016. 4th Nursing Home Visit Concert (Summer Hill Nursing Home)
 15/10/2016. Picnic (Breakheath Frower Festival)
 28/9/2016. 3rd Nursing Home Visit Concert (Baptist Care, DHL Centre)
 26/9/2016~6/10/2016 First Korea-Australia Volunteer Training First Aid Training (18 Trainees)/
 Graduated 13 people among 24 students
 3/8/2016. NSW Fair Trading Registry (INC1601021)
 Chairperson / Public Officer (Representative): Jang Dae Kim
 Treasurer: Jung Hee Song, Secretary: Soon Ja Sung, Audit: Cheol Ho Cho

DONATIONS

Do not withhold good from those who deserve it, when it is in your power to act. (Proverbs 3:27)

Bank Name: Westpac Bank

Account Name: Australian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orporated

Account Number: 032-069-53-7515

<< ACC/SICA 호스피스 알림 >>

ACC/SICA 호스피스에서는 암 환우와 그의 재할을 돕기 위해 봉사자들과 매주 토요일 바닷가 걷기를 하고, 또한 암환우와 그의 가족을 위하여 매주 월요일 특별중보기도회를 갖고, 예약 상담 및 전화 상담, 그리고 주일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환우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 드리는 찾아가는 목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ACC/SICA 호스피스는 모든 회원이 자원봉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0:8)

◎ ACC/SICA 호스피스의 발자취

- 2017.9.25 제3기 한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연수 교육 (특별초청강사: 이종욱 교수) 및 First Aid Training
- 2017.9.25 제14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Shalom Centre, Baptist Care, Macquarie Park)
- 2017.9.2 특별초청강사: 박사선 전문의 정태식 박사 (Clifton Gardens, 1pm)
- 2017.8.25 부산복음병원과 호주호스피스협회(ACC) 협약 체결(MOU)
- 2017.8.14 제13차 ACC-SICA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Uniting Thomas Roseby Lodge, Marricville)
- 2017.8.12 제5차 시드니호스피스회(SICA) 정기총회 및 제1차 호주호스피스협회(ACC) 정기총회
결의사항: 시드니호스피스회(Sydney Institute of Cancer Aid Incorporated, SICA, ABN 87 157 916 417)를 무득이한 사정으로 폐쇄하기로 함. 호주 호스피스협회(Australian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orporated, ACC)에 기증 함. "Committee"의 한글명칭을 상임운영이사회" 로하고, 그 구성원의 직위에 대한 한글 명칭과 임원은 아래와 같이 정함. 대표(Chairperson/Public Officer): 김장대사무총장(Treasurer): 송정희 부대표(Secretary): 성순자 협동사무총장 및 감사(Audit): 조철호
- 2017.7.10 제12차 ACC-SICA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Jesmond Aged Care, Strathfield)
- 2017.6.12 안양 샘 병원과 호주 호스피스 협회(ACC) 와 협약체결 (MOU)
- 2017.6.5 제11 차 ACC-SICA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Columbia Aged Care, Strathfield)
- 2017.5.8 제10차 ACC-SICA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Cooinda Court, Baptist Care)
- 2017.4.25 제2기 한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대구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4.27
- 2017.4.10 제9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The Gracewood Centre, Baptist Care, Kellyville)
- 2017.3.20 제8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Meredith House Nursing Home)
- 2017.2.20 제7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Woodlands Nursing Home)
- 2017.1.20 제6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Estia Health Nursing Home)
- 2017.1.9 ACC Home Page 개설(www.australianhospice.com.au)(영문홈피)
- 2016.12.31 제1회 호스피스 어머니 시상식 (수상자: 이금귀, 장지수, 장정옥) (ACC/SICA 공동 주최)
- 2016.12.22 제5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Baptist Care, Shalom Centre) (성탄축하연예배, ACC-Baptist Care)
- 2016.11.30 제4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Summer Hill Nursing Home) (ACC/SICA 공동주최)
- 2016.9.26 제1기 한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전체 24명 참가 (~10.6) (13명 수료)
특별초청강사: 전재규(대구동산병원 의사/한국호스피스협회 설립자/분회 고문)
김경환(대구동산병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15년경력)
- 2016.9.28 제3차 추수감사주간 음악회(Baptist Care, DHL Centre) (ACC/SICA 공동주최)
- 2016.9.26 호주정부 무료 First Aid 자격 교육(18명 자격 취득)
- 2016.8.20 제4차 정기총회 (장소:모지식당(Strathfield) 오후 3시)
결의사항: Australian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orporated(ACC)(호주 호스피스 협회) 설립(ABN: 17 110 189 115): 시드니 호스피스(SICA)는 제8차 Committee에서 Australian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orporated (ACC)를 설립하기로 의결하였고, 호주 전역으로 호스피스 사역을 넓히고자 호주 호스피스 협회(ACC) 설립을 총회에서 추진 함. 호주 호스피스 협회(ACC) 초대 임원(Committee Member) 선임: Chairperson/Public Officer(대표): 김장대 Treasurer (재정): 송정희, Secretary(총무): 성순자, Audit(감사): 조철호
- 2016.5.9 제2차 어머니 주간 음악회(Baptist Care Shalom Centre)
- 2016.1.1 SICA Home Page 개설(www.sydneyhospice.com.au)
- 2015.12.28 제1차 성탄 송년 음악회 (Baptist Care Shalom Centre)

- 2015.10.24 제3차 정기총회 (장소:모지식당(Strathfield) 오후 3시 30분)
결의사항: 정관에 명시된 Committee 에 대한 정확한 한글 명칭이 없이 "운영위원회" 혹은 "이사회"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어 조직운영에 혼란을 가져왔으므로 제3차 정기총회 이후 한글명칭 "이사회"는 해산되고, 정관에 명시된 "Committee" 라는 영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고, 새로운 Committee Member 를 발기로 함. 별칭으로 AICA (Australia Institute of Cancer Aid)를 사용하기로 함.
- 2015.9.30 대구 동산병원 호스피스회와 상호교류협약 체결(MOU) (김장대 목사 대표 자격으로 한국방문 협약체결)
- 2015.9.25 부산 고신대학교 복음병원과 상호교류협약 체결(MOU) (김장대 목사 대표 자격으로 한국방문 협약체결)
- 2015.8.10 사무실 이전 St Phillip's Anglican Church (29 Clanalpine St. Eastwood NSW)
- 2015.8.8 제2차 임시총회(장소:모지식당, 의제:김장대목사 대표선임) (대표(Chairperson, Public Officer): 김장대목사 신임, 96% 찬성)

이전 연혁은 홈페이지 참조

◎ 암환우의 필요를 도와 드립니다

암환우 상담은 요청시 언제나 가능하며 가정 방문도 가능합니다.

- [정기상담] • 일시: 월, 화, 수요일 10:00~16:00
- 장소: 본회 사무실
- 문의: 0430 370 191 / 0416 758 272 (전화로 상담시간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헤세드 힐링 자원봉사자 모집

암 환우의 회복과 심리치유를 위하여, 그리고 너스름 환우들과 기쁨을 함께하는 음악 재능 봉사자와 드라마를 통하여 환우들의 심리적 회복과 치유를 나누고자 드라마 재능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연락처 0430 370 191/0416 758 272

◎ ACC/SICA 호스피스와 해외협력기관

- 부산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복음병원 호스피스 센터 (대한민국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장거리 박사의 사랑과 헌신이 담긴 기독교 병원)
- 대구 동산 호스피스회 (1899년에 미국 선교사 존슨 의사에 의해 재중원(濟衆院)이란 이름으로 설립된 대구 최초의 근대병원)
- 안양 샘 병원 (한국 기독교 의료선교의 유람선 "침병을 치유하지 말고 사람을 치유하라" 뜻 고집 철벽은 없다. 다만 뜻 고집 사람이 있을 뿐이다")

◎ 암환우와 그의 가족과 함께 바닷가 걷기

- 대상: 암환우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장소: Circular Quay 3번 부두
- 준비물: 도시락, 물
- 연락: 0405 317 843(송정희 리더) / 0430 370 191

◎ 제15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 장소: Burnburn Nursing Home, 27 Grantham St. Burwood NSW 2134
- 일시: 2017년 10월 30일(월요일) 오후 2시
- ◎ 제1차 호스피스 헤세드 힐링 (Checed Healing) 공연
- 장소: St Catherine's Aged Care Services, 162-166 Balaclava Rd, Eastwood NSW 2122
- 일시: 2017년 10월 23일(월요일) 오후 2시

◎ 본 회의 기부금은 호주정부세금감면혜택 (DGR)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후원 입금 계좌명 및 계좌번호

후원 계좌명 (Account Name): Australian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orporated

Bank	BSB No.	Account No.
Westpac	032-069	537515
NAB	082-451	68-612-2677

* 정성어린 후원금은 ACC / SICA 호스피스 봉사활동을 위하여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소식지 ACC 회계자료 (8/2017)					
수입			지출		
이름	금액	항목	항목	금액	비고
Herbalife(김영진)	2000	Donation	통신비	69.35	
Seong Mee Lee	100	MEMBERSHIP FEE	인쇄 홍보 비	275	
Il Hwee Kim	50	MEMBERSHIP FEE	차량유지비	50	
Han Yong Lee	60	MEMBERSHIP FEE	관리비	110	
Jangdae Kim	110	MEMBERSHIP FEE	식대 및 부식비	521	총회 식대 포함
SoonJa Sung	110	MEMBERSHIP FEE	경조비	0	
EIhis Kim	10	MEMBERSHIP FEE	행사 및 세미나	148.9	
Sarang Kim	10	Donation	사무용품	0	
Bok Hee Choi&Jin Geun Yoon	100	Donation	회계사.변호사	0	
Soon e Jung	30	MEMBERSHIP FEE	보험료	0	
Ok Kyung Kim	50	MEMBERSHIP FEE	water	0	
Jongse Kim (Paul)	50	MEMBERSHIP FEE	First aid	0	
Gyeong Hee Lim	50	MEMBERSHIP FEE	지출 Total	1174.25	
Tae Sun Oh	50	MEMBERSHIP FEE			
In Hee Lee	20	MEMBERSHIP FEE			
Bok Gyeong Kim	50	MEMBERSHIP FEE			
Jong Soon Kim	120	MEMBERSHIP FEE			
Kum gui Lee	100	MEMBERSHIP FEE			
Dong san Hanna	210	Donation			
Harp group	50	Donation			
Jung Hee Lee	20	Donation			
Jeung Bun Kang	50	Donation			
Sung mo Han	10	Donation			
GNA SOLUTIONS PT n 은	100	Donation			
GNA support PT n 은	100	Donation			
c	200	Donation			
ATO w 은	568	세금 환급 금			
Invocare EFT w 은	200				
CBA donation from KNAA w 은	120.00				
PYMT IN-JA KIM w 은	100				
INTEREST w 은	0.17				
수입 Total	4798.17				
*SICA 회계자료					
ATO 환급 18/08/2017	2,121.00				
Sydney light and salt 7/08/2017	300				
*현물및 도네이션					
한성모	60	떡 50+도네이션 10			

건강상식

<골다공증 예방>

골다공증은 뼈에 바람이 송송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뼈를 튼튼하게 할 수 있을까요?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것 중에 생각나는 것은 칼슘이지요. 칼슘은 인체 내 칼슘 전체 중 99%가 뼈에 있고, 나머지 1%가 심장근육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근육이 움직이는데 필요한 것이 칼슘입니다. 칼슘이 많은 우유나 멸치 같은 것을 드시게 되면 뼈가 튼튼해지니까 평소에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유나 멸치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칼슘이 평평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우유나 칼슘을 많이 먹었는데도 골다공증이면, 그 사람은 동물성 지방을 먹으면 오히려 칼슘이 그만큼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좋은 것이 식물성 단백질인 콩입니다. 콩 중에서도 검은 콩이 좋습니다. 뼈에는 검은색 식품이 좋거든요. 검은 콩, 검은 깨, 검은 쌀, 이런 것들이 뼈를 튼튼하게 하는 데 좋습니다. 그러면 이 칼슘이 들어있는 것들을 먹었다고 해서 모두 인체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흡수되고 일부는 배설됩니다. 배설되는 것들을 배설되지 않게, 칼슘이 뼈에 착착 달라붙게 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 D 입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이 뼈에 착착 달라붙지 않기 때문에 칼슘을 많이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섭취해야 하는데, 우리 몸 안의 콜레스테롤을 햇빛을 쬐이면 그 햇빛에 의해서 비타민 D가 된다는 것이예요. 햇빛은 아주 좋은 의약품입니다. 아침에는 10시 이전에, 오후에는 4시 이후에 30분정도 걷게 되면 그 햇빛에 의해서 우리 몸에서 칼슘을 뼈에 착착 달라붙게 하는 비타민 D가 생성된다는 것이예요. 그래서 햇빛을 쬐며 걷는 것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고 우울증도 사라지게 합니다.



주요 활동

삶과 죽음이란 두 갈래 길에서 어떤 치유가 지혜로운 선택일까 같듯하며 힘들어 하는 환우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의 필요를 조금이라도 돕고자 합니다. 환우의 신앙과 무관하게 그들이 필요하다면 저희 호스피스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는 환우의 필요를 돕기도 하지만 할 수 있다면 환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면서 지혜로운 방향을 선택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다 나은 치유의 효능을 위하여 인간을 지으신 창조원리에 의한 치유방법을 권장하고 있으며 실제 치유되고 있는 많은 극복자를 소개해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을 강요하지 않으나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바른 삶이 치유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 암 환우와 그 가족을 섬깁니다.
 - 가능한 범위에서 통역지원, 환우와 함께하기, 환우와의 상담지원, 환우와 가족을 위한 필요 돕기 등등
2. 암환우의 치유에 도움을 드립니다.
 - 투병중인 환우나 암을 극복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추천하여드립니다.
 - 암환우의 회복에는 심리치유가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하여 암환우와 함께 웃음치유, 미술치유, 음악치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암환우와 가족들을 즐겁게하여드립니다.
3. 암환우와 그의 가정의 회복을 도와 드리며 교인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 암환우와 함께 바닷가 걸기를 실시함으로 연약한 암환우의 건강이 회복되며 그의 가정이 소망으로 회복되는 되는데 기여합니다.
 - 암환우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바닷가 걸기를 함으로 교민사회에 봉사정신을 고취시키고 교민 사회에 건강을 증진하는데 기여합니다.
4. 호스피스 자원봉사와 성경적 의학 교육
 - 약한 자를 돕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은 성경적인 원리에 의하여 건강을 증진하는 기법을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실질적 교육 프로그램으로 정기교육과 비정기 교육으로 실시합니다.
5. ACC/SICA 홍보활동
 - ACC/SICA 활동의 홍보는 정성어린 교민들의 기부금과 교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하여 이뤄 지고 있습니다.
 - 매월 정기적으로 "호스피스 투데이(Hospice Today)"란 명칭으로 월간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 암환우에게 새소망을 주고 교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년 1회이상 특별 공연을 실시합니다.
6. 임종과 장례지원 및 남은 가족을 지지해드립니다.
 - 형편에 따라 겸소한 장례가 치러지도록 도와 드립니다.
 - 환우가 떠난 후 남은 가족들이 속히 슬픔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큰일도 작은 일에서부터"

10월의 여유있는 삶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걸려 있는 무지개 다리(Rainbow Bridge)는 미국 쪽과 캐나다 쪽 양쪽에 연결되어 있는 아름다운 다리이다. 이 다리는 1847년에 놓여 진 이래로 세계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절경이다. 험한 협곡에 무려 244m 되는 다리가 지금처럼 공법이 발전한 시대도 아닌 19세기에 어떻게 이런 다리를 놓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사실 아주 간단한 발상에서 시작되었다. 1847년, 현수교 시공 전문가였던 Charles Ellet Jr 은 먼저 연을 뒤워 연줄로 나이아가라 폭포의 미국 쪽과 캐나다 쪽을 연결하였다. 그리고 나서 연줄에 아주 가는 코일을 매달아 잡아당겼다. 다음에는 강한 철사를 코일에 연결하여 당겼고, 그 다음에는 철사에 밧줄을 매달아 당겼다. 끝으로 밧줄에 쇠로 만든 케이블을 매달아 당겨서 양쪽을 연결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쇠줄을 이용하여 구름다리를 놓기 시작하여 마침내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레인보우 브릿지가 놓이게 되었다. 험한 폭포위에 놓여 진 웅장한 다리도 연을 띄운 작은 일에서 시작되었듯이 모든 위대한 업적과 성취의 뒤 그늘에는 반드시 작은 시작이 있었다. 우리들은 큰일을 이루기를 원하지만 작은 시작을 하지 못한다. 좋은 시작이 없이는 큰 성취가 얻어질 수 없음에도 우리는 작은 시작이 없이 큰 성취를 이룰 생각에 젖어 있다.



- ◎ 발 행 처: ACC/SICA 호스피스 협회
- 비영리 단체등록법인(ACNC): ACC(ABN:17 110 189 115)
- 주소(Add.): PO BOX 615 Lidcombe, NSW 1825
- Mob: 0430 370 191, 0416 758 272
- E-mail: australianhospice@gmail.com or sydneyhospice@gmail.com
- Web: www.australianhospice.com.au(Eng) / www.sydneyhospice.com.au(Kor)
- 발행날짜(Date of Issue): 2017년 10월 4일
- 발행(Publication)/편집(Edition): 김장대(Rev. David Kim)
- 인쇄(Printing): JC 우리인쇄소